

“나도 김~치”

유·스퀘어, 미소사진 수상작展



전병태 작 '등목'(최우수상)

아름다운 미소가 유·스퀘어문화관을 꾸민다.

유·스퀘어문화관(이하 문화관)은 오는 11일부터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서 '제3회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들을 전시한다.

문화관은 지난 3월 '세상을 밝혀줄 미소 어디 없나?'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전병태씨의 '등목'과 장석천씨의 '30년 전엔 내가 없어주었는데' 등이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이 밖에도 윤경은씨의 '연재나'와 박시춘씨의 '안아주세요' 등 4점을 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26점을 수상작 및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문화관은 지난해 초 유·테라스에 야외갤러리를 만들면서 이곳을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시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문화관은 6월 제4회 시민 사진 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한민국 상상캠프

내달 19일부터 제주도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CJ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상상캠프'(Crazy Camp)가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 나인브리지에서 개최된다.

캠프의 주제는 '문'이며 '문·文·門·MOON'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캠프에서는 창의지식 특강, 역량 발표회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강우현 남이섬 대표가 캠프의 총괄 운영을 맡았고,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이 강사 및 멘토로 참여한다.

우수 수료자에게 상장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을 주며 특히 CJ 입사를 지원할 경우 2015년까지 서류전형에 가산점을 준다. 총 40명을 모집한다.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http://www.kocca.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립뉴스

풍성한 문화 장터



물건을 사고 팔고, 공연도 관람하는 문화 장터가 열린다. 사진은 대인예술 야시장 모습.

시끌벅적 빛고을



13일 카시오페이아 벼룩시장
19일 원당숲 모테보테 장터
매주 토요일 무각사 '보물섬'
대인야시장 月마지막 금·토



광주오페라단 정기공연
'춘향전'
11~14일 광주문예회관

시끌벅적한 장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날들이 하기 좋은 봄날, 도심 속 장터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최근 들어 문화가 어우러진 재미있는 장터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에게 필요치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지도 모를 물건을 판매하려 나서도 좋고, 온 좋으면 멋진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공연도 즐기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즐기면 좋다.

사람이 모이고, 숨겨져 보태진 '원당숲 모테보테 장터'가 올해 두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원당숲 이웃들, 원당숲 친구들이 진행하는 모테보테 장터는 지난해 9월~11월 매달 한차례씩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인라이프스케이프에서 처음 열렸었다. 올해는 장소를 원당숲으로 옮겼다. 기부금과 수익금으로 몇해전 불이 났던 원당숲을 푸르게 할 목표를 구입한다.

'도심형 공동체 마켓'을 표방한 장터에는 손맛과 손재주가 담긴 모든 물건을 가져 오면 된다. 지난해에는 직접 담근 매실 장아찌, 딸기잼을 비롯해 솜씨를 발휘한 쿠션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됐다. 올해 장터에서도 건강한 먹을거리와 살림거리를 판매하며 손재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지역 뮤지션들의 공연도 만날 수 있으며 어린이 장터도 따로 꾸려진다.

모테보테는 매월 두번째 주 토요일에 열리며 올해 첫번째 행사는 지구의 날인 19일 시작한다. 참가 신청 070-8285-3171.(cafe.naver.com/motebote)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카시오페이아에서는 벼룩시장이 열린다. 오는 13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카페와 앞마당이 장터로 변신한다.

2009년 문을 연 카시오페이아는 다양한 음악회 등이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개점 초기 반년 정도 벼룩시장을 진행한 후 휴지기를 갖다 올

래 다시 기지개를 켜다. 듣지 않는 음반, 읽지 않는 책, 안 입는 옷등을 누구나 판매하고 구매자가 될 수 있다. 담당자(010-5604-3570)에게 이틀과 연락처, 판매목록 등을 간략하게 적어 문자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511-3558.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젝트인 대인예술시장 사업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야(夜)시장은 지난 2010년 첫 선을 보인 후 가장 성공한 아이টে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역 예술인들이 제작한 아트 상품과 시민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만나고, 시장 상인들이 만든 맛있는 먹을거리, 각종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유쾌한 장터다.

올해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사)전라도지오그래픽 역시 야시장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한다. 첫번째 야시장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열리며 혹서기인 7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마지막주 금·토요일 진행한다.

(사)전라도지오그래픽은 상인, 예술인, 시민, 신진 예술가등 행사 주체를 매회 변화시키면서 특화된 야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무각사에서 열리는 재활용 장터 '보물섬'도 눈길을 끈다. 올해 6년째를 맞은 보물섬은 2009년 무각사 주지인 청화 스님의 제안으로 광주지역 4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보태 매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9차례 열렸으며 1111만 9134원을 모아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올해 첫 장터는 지난 3월 8일 문을 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이 열리며 당일 오전 9시까지 보물섬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장터 판매자가 될 수 있다. 토요일 오전 우천시에는 장터가 열리지 않는다. 문의 062-385-01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춘향이 옥중에 갇힌 장면에서 이도령과 부르는 사랑의듀엣 등을 만날 수 있다.

춘향 역으로는 박희현·이승현·남현주·신은선씨가, 이도령 역으로는 조효중·송태왕·이상화·강동명씨가 출연하며 김남경·이호민 씨 등이 출연한다. 연출은 이범로씨가 맡았으며 지휘는 변옥씨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으며 광주오페라단합창단과 광주여대 '숨'댄스 무용단(안무 여순심)이 함께 한다. 문의 062-520-88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여겨 본 후배들과 '畵기애애'

광주 롯데갤러리 19일까지 '신춘정담'



백중휘 작 '천리마'

'선배와 후배'. 언제 들어도 정겨운 말이다.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신춘기획 '신춘정담(新春情談)'전은 세대가 다른 화우들의 정겨운 담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중진 미술인 3명이 평소 작품 세계를 인상 깊게 지켜보던 후배 작가들을 추천, 함께 전시장을 꾸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국화가 오경규씨는 장용림, 최진우씨, 한국화가 박태후씨는 이혜리, 김화영씨, 서양화가 한희원씨는 박성안, 백중휘씨를 각각 추천했다.

특히 오경규, 박태후, 한희원씨는 자신들의 작업과 유사한 작품을 추구하는 후배 작가들이 아닌 나름의 가치와 의미로 재해석한 작가들을 추천해 회화와 설치,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들은 후배들을 선정하면서 화단에서의 이름보다는 창작태도와 작업세계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오경규씨는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꽃들이다. 매화, 개망초, 짙레꽃 등인데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다. 맑으며 고요함으로 자신을 일컫내는 작가의 고요한 꽃의 은은한 향기처럼 나에게 슬그머니 다가온다"라며 장용림씨를 추천했다.

박태후씨는 김화영씨를 소개하는 글에 "오랫동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의 작업은 반짝반짝하고 세련되어, '금속공예도 저렇게 풀어가 수 있구나'하는 감탄을 준다"고 말했다.

한희원씨는 "백중휘의 작품은 현대적인 느낌과 고전적인 감성이 묻어나고 있어 작품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밝혔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예술인회 '소나무' 봄호 나와

원로들의 고백 '나의 대표작' 신설

(사)광주예술인회가 발간하는 '소나무(사지)' 2014년 봄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신춘에 듣는다'로 시인 문병란, 화가 강연균, 석각가 국선환, 건축가 류연창, 무용가 박경숙씨 등의 인터뷰가 실렸다.

'예술인의 삶 이야기'에서는 오승우 화백의 삶을 담았으며 '살아 숨쉬는 근대 미술관'에서는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정회원구실장이 배동신 화백의 수채화 세계에 대한 글을 실었다.

또 '터 이야기'에서는 경양방죽과 태봉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시인 배대순, 사진작가 강봉규, 한국화가 양계남씨의 작품세계도 실렸다.

이번 호에서는 광주원로예술인회원들의 대표작에 관한 고백적 이야기를 담은 '나의 대표작'이 신설됐고, 서예가 이규형, 소설가 한승원, 사진작가 정영욱씨의 글이 실렸다. 문의 062-228-34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